

최연의 산 이야기 ④ 소백산 2



퇴계의 수제자인 서애 유성룡의 위패를 모신 병산서원.

소백산 지나며 영남·호남 가르다

조선조 지역 따라 기호학과·영남학과 양립

백두산에서 남으로 줄달음쳐 온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소백산(小白山)을 지나면서 서쪽으로 방향을 튼다. 다시 서남쪽으로 향하며 300여 km를 달려 남쪽 바닷가에 이르는데, 그 뒤편인 산줄기가 영남(嶺南)과 호남(湖南), 호서(湖西)로 갈라놓았다.

율곡 이이(李珣)를 종(宗)으로 하고 사계(四溪) 김장생(金長生)을 조(祖)로 하며 계몽산 주봉에서 명문세가를 이루며 살았던 기호학파는 선조 8년에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진 이후부터 1910년 망국(亡國) 때까지 335년간 계속된 사색당쟁(四色黨爭)에서 300여 년 간이나 집권당 노릇을 한 서인, 노론(老論), 소론(小論)을 일컫는다.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석학(碩學) 대유(大儒) 수십 명이 나왔는데, 그중 9명이 문묘에 배향되어 유현(儒賢)의 소리를 들었다. 그 9명이 모두 기호학파에 속한 이들이다.

반면에 야당에 해당되는 남인(南人)들은 퇴계 이황(李滉)을 종장으로 하는 영남학파다. 퇴계의 고향인 안동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거지가 당연히 소백산 자락 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 27왕 519년의 역사에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인 영의정을 모두 164명이 지냈는데 그중 영남학파에 속하는 이는 둘 뿐인데, 선조 18년에 65번째 영의정이 된 경복 상주 출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과 선조 25년 68번째의 영의정에 오른 안동 출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다.

이것은 조선시대가 기호학파의 노론 중심의 권력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말에 대원군(大院君)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을, 첫째는 호서지방 즉 충청도의 명문세가 양반들이고, 둘째는 호남지방의 아전들이고, 셋째는 평안도 강계지방의 기생들이라고 했다.

충청도 양반은 기호학파의 집권당으로서 권력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충청도의 내포평야(예당평야)와 평택평야 등 기호지방의 토지를 거의 독점으로 소유하며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어 이것이 나라의 살림을 좀먹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였다. 호남지방에 부임하는 관리(官吏)들은 하루빨리 중앙관직으로 가려고 한양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고을의 살림은 팽개친 상태여서 아전들이 관리와 백성 사이에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행태를 일삼았다. 이 또한 나라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강계미인(江界美人)이 기생이 되어 평양감영(平壤監營)에 소속되면 그 미색에 넘어간 관리들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주지육림(酒池肉林)에만 빠져 지내 이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평양기생 이야기는 강계미인이 평양감영에 소속된 기생이어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영남학파인 남인의 거점인 소백산 남쪽 영주, 안동, 상주지방은 대부분의 땅이 험준한 산이다. 들판이라고는 상주평야와 안동의 풍산들 정도이다. 안동사

람들은 호남과 호서지방의 너른 들에 비하면 한 뼘도 못되는 풍산들을 세상에서 제일 넓은 들로 인식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4대강 개발사업으로 마구 파헤쳐져 병산서원과 하회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풍산들이 반도 남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계속 파헤쳐지고 있다.

기호학파의 태두 율곡과 영남학파의 태두 퇴계는 학문적 입장에 달랐다. 율곡은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 즉 주기설(主氣說)을 주장하고, 퇴계는 이발기승설(理發氣隨說) 즉 주리설(主理說)을 주장하였는데, 여러 학자들의 논평을 종합해보면 우열심전(愚劣深淺)이 백중세(伯仲勢)라는 게 결론이다.

한국전쟁 때 남북된 사학자 현상윤은 그의 저서 <조선 유학사>에서 퇴계와 율곡을 다음과 같이 비교 평가했다. "연구의 독실한 것과 조예의 심오한 것은 율곡이 퇴계에 못 미치는 것이고, 관찰의 명민한 것과 논리의 직재(直裁)한 것은 퇴계가 율곡에게 사양지 않을 수 없는 점인 가 한다. 그러기에 양현의 학문을 건축에 비하면 퇴계는 기초를 닦고 각양 재료를 준비한 이요, 율곡은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장려한 건물들을 세워 놓은 이라 볼 수 있다."

학문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이었으나 현실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엄청난 세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백산 남쪽에서 퇴계를 중심으로 학문을 한 영남학파는 기호학파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영남학파라는 것은 경북지방의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인 남인을 말하고 경남지방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명 조식의 북인(北人)은 영남학파와는 다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손

읍내에 나갔다가 밤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급히 배추밭에 가보니 배추들이 얼은 채 굳어있다. 포장으로 덮고 방으로 들어오니 겨울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가을은 오는 지도 모르게 오고 가는 지도 모르게 갔다. 빠른 흐름 가운데서도 세상은 시끄러웠다. 유별나게 많이 오가던 쥐 이야기보다도 내 시선을 오래 붙잡았던 한 장면이 있다. 아마도 지금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을 사진의 모습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한 장. 난간을 넘어간 아버지와 아들이 막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에서 선명하진 않았지만 형태만큼은 분명하게 잡혔다. 사진에서 유난히 내 시선을 잡은 것은 손 하나였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었고 아들로 보이는 아이는 비스듬히 다리 쪽으로 상체가 기울 상태였다. 기울어진 상체 한편에 난간을 붙잡은 손이 보였다. 난간 너머로 팔을 뻗어내려 밑부분을 꼭 잡은 손 하나.

대학에서 아동발달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의 과제물 중에 아기가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있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손에 무엇인가 닿으면 꼭 붙잡는다. 살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는 아이의 행동은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였다. 살기 위해 잡을 수 있는 걸 잡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함께 죽자고 할 때 아이도 동의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 아이는 죽고 싶지 않았다. 살려고 본능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을까?

인터넷신문 기사엔 아들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아버지가 뒤를 따랐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이 어퍼하든, 아들이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놓은 것 같지는 않다. 먼저 가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해도 아들은 끝끝내 놓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유전자라는 형식으로 구축해 놓았다. 인간은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살도 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요즘은 죽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자랄 때는 물론이고 다 커서까지 뒷바라지를 하여 사회 내에서 웬만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나라의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다. 부모가 없이는 제대로 자라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나가는 데도 불리하기 짝이 없다. 한편으로 사회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죽는 사람들을 욕하기 어렵다. 죽으려면 자신만 죽지 왜 아이까지 생으로 죽이려고 닦아내기 쉽지 않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어간 아이들의 얘기가 더욱 쓸쓸한 여운을 남기는 까닭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이건 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다. 아이를 낳지 않는데다 말을 높이면서도 죽어가는 아이들은 바라보지 않는다.

어쩌면 이 사회 내의 인구는 너무 많은 지도 모른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선 하나의 자식도 많다. 가진 이들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다.

난간을 놓지 않고 있던 아이는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도 아니다. 한때 사람이었고, 인간사회의 어린 아이였던 존재. 지금은 산산이 흩어져 이 세상 천지간에 나야간 사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의 한 알갱이로써 어쩌면 그 아이의 몸일 수가 있겠다. 잘 자라는 말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고자 하는 아이를 죽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다.

온난화로 겨울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데, 해가 갈수록 겨울이 점점 더 춥다.

시인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영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큰스님이 추천하고, 명예원로의원 성수 큰스님이 증명한 책 성품이 본래마음이자 도요요 선(禪)임을 밝힌 참선 및 염불 수행자의 필독서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추천 도서

달마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죠 — 연함뉴스
간화선 어릴다면 열불선이 대안될 수도 — 한국일보
달마어록 대중도 쉽게 이해 — 경향신문
달마어록 번역서가 아닌 해설서는 처음 — 문화일보

교법당, 교도소 등에 법보시할 경우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움(비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771 52-10 남영BD 2층 222호
전화 02-2632-6739 팩스 02-2068-0178 e-mail buddhapia5@daum.net

농협농자년거치4년분할상환

농협농자지정업체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